

안전지대 창설과 시리아의 정세 전망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주요내용

- ▶ (사태의 전환점)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시리아 사태 중재국이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가 5월 6일 발효된 이후 교전이 급감함.
- ▶ (러시아 주도 해법)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내전 해법이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강화되는 반면 미국의 입지는 약화하고 있음.
- ▶ (시리아 정권 입지 강화) 반군의 주요 도시 철수로 인해 시리아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중동 내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1. 이슈 현황

▶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시리아 사태 중재국이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De-Escalation Zones)' 창설이 5월 6일 발효되면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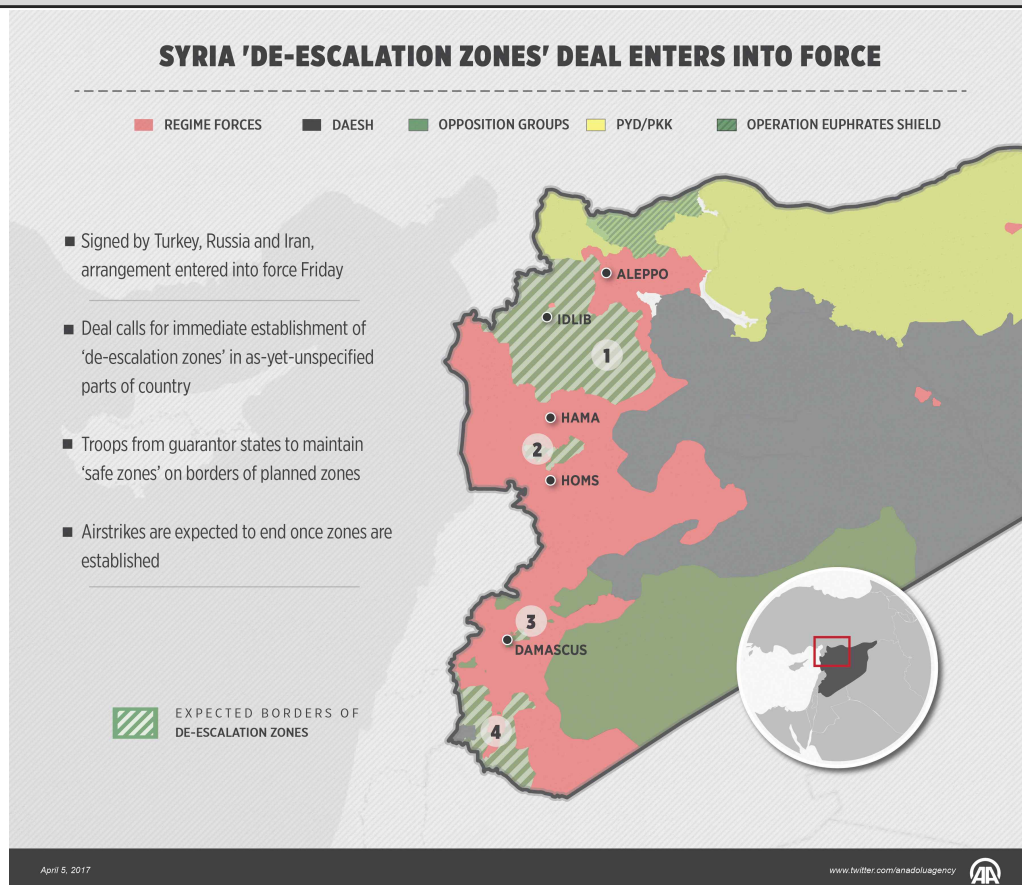
- 5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협상 4자회담에서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창설하는 의정서가 서명됨.
 -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 알렉산드르 라브렌티예프, 터키의 중동 담당 외무차관 세다트 오날, 이란의 아랍·아프리카 담당 외무차관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 등이 의정서에 서명함.
 - 아스타나 회담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우리는 시리아 분쟁의 긴장 완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긍정적 행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유엔은 이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¹⁾

1) "UN envoy commends plan to setup de-escalation zones in Syria as promising positive step," UN News Center (4 May 2017). (검색일: 2017.5.18.)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6686#.WR9aJ4e1sdU>

□ 안전지대 창설의 주요 목적은 특정 지역의 긴장 해소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기반을 다진다는 것임.

- 안전지대는 1) 시리아 북부 이дли브주(州)와 주변 알레포·하마·라타키아 일부; 2) 홈스 북부 3) 동부 구타 그리고 4) 시리아 남부 요르단 인접 국경 지역 4곳에 설치됨.
- 안전지대 내에서는 1) 무기의 사용과 일체의 전투행위가 중단되고 2) 해당 지역 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되며 3)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이 보장되고 4) 상수도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복구되며 5) 행정기관들의 업무가 재개되고 난민들의 복귀도 허용되며 6) 안전지대 외곽을 따라선 내전 당사자들의 교전을 막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왕래와 인도주의 물자 및 상품 이동을 통제할 검문소를 설치하며 그리고 7) 경계선을 따라 안전지대 보호와 치안을 책임질 외국 군대도 파견됨.
- 그러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자바트 알누스라'(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삼) 등이 통제하는 지역은 공격 대상으로 남음.²⁾

그림 1. 시리아 내 창설된 안전지대



자료원 : Anadolu Agency, "Syria 'de-escalation zones' deal enters into force, 2017. 5. 5 (검색일: 2017 5 17)

2) Brandon Turbeville, "Syria's De-Escalation Zones Explained," News Deeply (11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www.globalresearch.ca/syrias-de-escalation-zones-explained/5589681>

▶ 아랍의 대부분 언론은 시리아 안전지대 합의가 이행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총성이 들리기는 하지만 시리아 전역 대부분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³⁾

□ 시리아 당국과 반군 간 합의에 따라 주요 교전 지역에서 반군이 철수하면서 충돌의 가능성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5월 14일 다마스쿠스 동북부 지역에서 반군과 그 가족 및 지역 주민 약 2,200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음.
- 더불어 여러 지역에서 반군이 도시를 포기하고 안전한 반군 장악지역으로 이동하면 시리아군이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해 말 제2 도시 알레포에서 반군이 패배한 이후 정부군의 진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안전지대 창설로 인해 반군도 전열을 정비할 시간과 안전지역을 가지게 됨.

- 반군의 이동으로 시리아 정부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고, 반군은 위험지역에서 대원과 가족을 철수시키고 있음.
-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이어진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 이후 지금까지 32만여 명이 사망함.
-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시리아인 490만 명이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했고, 국내 이재민도 630만 명이나 됨.

2. 원인과 분석

▶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내전 해법이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강화하는 반면 미국의 입지는 약화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이 7년째 접어들고 있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함에도 명확한 해법을 국제사회가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주도한 해법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됨.

- 시리아의 시아파의 일파인 알라위파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이번 안전지대 창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합의와 효율적인 이행이 진행되고 있음.
- 이란은 현재 수천 명에 달하는 공화국수비대와 시아파 민병대를 시리아에 파병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음.
- 쿠데타 진압과 대통령 중심제 개헌으로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터키도 이번 합의와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Relative calm in Syrian safe zones after deal," Al Arabiya English (7 May 2017)). (검색일: 2017.5.18.)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7/05/06/Clashes-in-northwest-Syria-after-de-escalation-zones-take-effect.html>

- 시리아 정권을 지지 및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해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향후 중동 지역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14일 4개의 안전지대를 향후 시리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감을 표명함.⁴⁾
- 러시아는 이번 시리아 사태의 주도권 장악을 시작으로 이란 핵 문제 및 리비아 사태 등 중동의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시리아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법과 개입 의지를 표명하지 않아 왔음.

-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상징적인 공습은 단행하였으나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와의 내통 등의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란 핵 문제를 제외한 기타 중동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고 있음.
-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기조를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적극적인 시리아 사태 개입에 대한 암묵적인 방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시사해 왔음.
-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안을 실질적으로 먼저 제기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미국은 아스타나 회담에 참관만 했을 뿐 논의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
-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지대는 시리아 난민 확산·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리아가 안정화의 길을 걷고 난민이 감소한다면 러시아의 구상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음.⁵⁾
- 안전지대 설정이 IS 등 과격세력 격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미국의 방관 전략은 향후 중동 내 자국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3. 전망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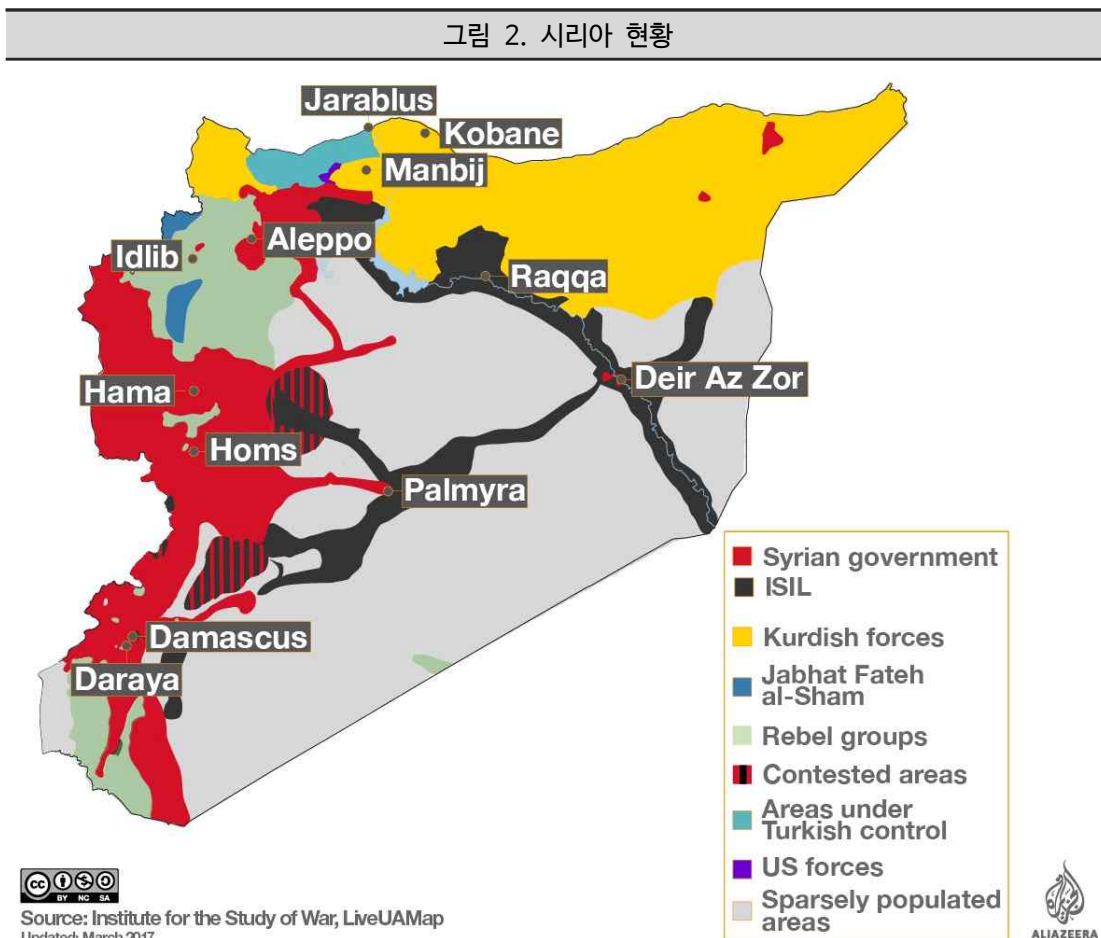
➤ 반군의 주요 도시 철수로 인해 시리아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중동 내 권위주의 체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4) "Russia to expand 'de-escalation zones' in Syria ," Orient News (15 May 2017). (검색일: 2017.5.17.)
http://orient-news.net/en/news_show/136398/0/Russia-to-expand-de-escalation-zones-in-Syria---Lavrov

5) Lorenzo Trombetta, "How the 'De-Escalation Zone' Plan Benefits Syria's Foreign Players," News Deeply (17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s://www.newsdeeply.com/syria/articles/2017/05/17/how-the-de-escalation-zone-plan-benefits-syrias-foreign-players>

- 4곳의 안전지대가 반군 장악 지역 내에 창설됨에 따라 군사적으로 반군의 입지가 약화하는 반면 시리아 정부군의 탈환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의 안전지대 창설 배경에는 반군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고 민간인과 분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한 것임.
 - 더불어 온건 반군과 테러세력을 지역적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시리아와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 지역을 명확히 지정하려는 의도를 가짐.
- 알-아사드 정권은 안전지대를 완충 지역으로 이용해 시리아 서부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권 생존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으로 예상됨.
 - 시리아 정부는 반군 지역과 테러세력 ‘불법 장악 지역’을 구분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향후 IS 등에 대한 공격과 정권의 정통성 제고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
 - 시리아 집권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중재와 협상에 의한 안전지대 창설이 향후에도 유혈 사태 방지 및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 해법을 지지하면서 알-아사드 정권도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후원 속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2. 시리아 현황



자료원 : AlJazeera, "Syria's Geneva talks: Expectations pretty low," 2017. 2. 22 (검색일 : 2017. 5. 17)

❖ 안전지대 창설이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해야 함.

- 안전지대 창설에 대해 일부 반군세력과 IS 등 이슬람주의 과격세력은 반발하고 있으며 합의와 이행에 서방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임.
 - 일부 수니파 반군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보증국으로 포함되는 안전지대 창설 합의를 수용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안전지대가 러시아 주도로 창설되고 운영되면서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시행에 있어 객관적인 감시체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안전지대 창설에 대해 주요 서방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도 현재 시리아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참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시리아 사태가 다소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양한 세력이 국토를 분할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부른 진출 혹은 사업 참여는 자제해야 함.⁶⁾
 -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은 아직도 일부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나 기업 모두 주변국가에서의 외교활동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이러한 복잡한 정세를 파악하고 해당국에서의 접촉 및 협력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EMERiCs**

6) Erika Solomon, "Syria de-escalation deal stirs fears of carve-up by foreign powers," Financial Times (16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s://www.ft.com/content/42aa4308-3941-11e7-821a-6027b8a20f23>

참고문헌

- "UN envoy commends plan to setup de-escalation zones in Syria as promising positive step," UN News Center (4 May 2017)). (검색일: 2017.5.18.)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6686#.WR9aJ4e1sdU>
- "Syria 'de-escalation zones' deal enters into force," Anadolu Agency (05 May 2017) (검색일: 2017 5 17). <http://aa.com.tr/en/middle-east/syria-de-escalation-zones-deal-enters-into-force/812024>
- "Relative calm in Syrian safe zones after deal," Al Arabiya English (7 May 2017)). (검색일: 2017.5.18.)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7/05/06/Clashes-in-northwest-Syria-after-de-escalation-zones-take-effect.html>
- "Russia to expand 'de-escalation zones' in Syria ," Orient News (15 May 2017). (검색일: 2017.5.17.) http://orient-news.net/en/news_show/136398/0/Russia-to-expand-de-escalation-zones-in-Syria---Lavrov
- "Syria's Geneva talks: Expectations pretty low," AlJazeera (22 February 2017) (검색일: 2017 5 17). <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7/02/syria-geneva-talks-expectations-pretty-170222062023683.html>
- Erika Solomon, "Syria de-escalation deal stirs fears of carve-up by foreign powers ," Financial Times (16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s://www.ft.com/content/42aa4308-3941-11e7-821a-6027b8a20f23>
- Lorenzo Trombetta, "How the 'De-Escalation Zone' Plan Benefits Syria's Foreign Players," News Deeply (17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s://www.newsdeeply.com/syria/articles/2017/05/17/how-the-de-escalation-zone-plan-benefits-syrias-foreign-players>
- Brandon Turbeville, "Syria's De-Escalation Zones Explained," News Deeply (11 May 2017). (검색일: 2017.5.19.) <http://www.globalresearch.ca/syrias-de-escalation-zones-explained/5589681>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